“연령제한 합리적” “보완책 필요” 의견 다양

40세가 넘으면 스님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계종의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주최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오는 8월 실시되는 제25기 행자교육원부터 적용되는 이 제한 조치는 지난해 9월 조계종 중앙종회가 출가자 연령제한에 관한 규정을 15~50세에서 15~40세로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40세 이상의 발심출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0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승가자질 향상과 승단 위계질서 확립 등 출가연령을 낮춘 이유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세 이상 출가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발제와 논평을 요약했다.

조계종 출가연령제한 공청회 (발제와 논평)

자격심사위서 적부 가려야

발 제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각 5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출가 연령’을 묻는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니, ▲비구는 30~40세 ▲비구니는 20~30세 ▲사미는 20~30세 ▲사미니는 20~30세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의 제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진정한 출가자를 위해 가칭 ‘40세 이상 출가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유무를 심사하는 방법 ▲15세~60세로 환원하는 방법 ▲승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30세 이하로 낮추는 방법 ▲최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출가 심사 자격 규제와 함께 행자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동진 출가자와 고령출가자를 이원화해 이들에게 수행체계와 종단법계 및 업무를 차등화 하는 방법이다.

저연령 출가유도 비전 제시

논 평 정산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고령출가자 증가 및 전체 출가자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제한한 것은 출가자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연령층의 출가를 유도할 수 있는 종단 비전제시, 수행과 중생교화를 근본으로 하는 청정승가공동체의 지향, 발심 출가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엄격한 수행과 교육과정 및 수계제도 마련 등이다.

사회행적 등 검증거쳐 허용

발 제 지오 스님(조계종 교육위원장)

출가 연령 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 출가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40세 이상인 출가자도 기존 40세 미만 출가자와 동일하게 행자생활 및 기본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사회행적과 논문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허락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시에는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종단에서 발급하는 승적은 부여하지 않고, 40세 이상인 출가자가 정하는 은사가 직접 수계를 주되, 소속은 은사된 이가 속해 있는 그 사찰로 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종교자유 제한 간과 말아야

논 평 성무 스님(용주사 교무국장)

종법으로 출가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권내지 개인의 수행 원력을 제한하는 비합법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점 해결 방법에서 ‘특별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교육 · 위계질서 문란 · 종단 위상 추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

율장엔 출가제한 규정없어

발 제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율장에서는 출가 연령의 하한선을 규정할 뿐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면, 출가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고 이해할 만하다.

출가 연령의 문제에서 고려하고 강구해야 할 것은, 고령자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자의 우대라고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이미 사회 복지 사업으로 이들을 구제하고 있다. 고령자 출가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정신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륜 고려하여, 비구나 비구니로 인정받기까지의 단계적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도 있다. 고령자의 출가제한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처할 인재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재를 선별할 것이 아니라 승단자체의 교육과 수행을 통해 양성하는 것이 불교 고유의 기능이며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생에 출가를” 너무 가혹

논 평 조연현 기자(한겨레신문)

‘혼자서만 타는 수레’라며 남방불교를 ‘소승’으로 폄하하고, ‘중생들과 함께 타는 수레’라고 등장한 대승불교가 오히려 중생들의 승차를 막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출가를 간절히 바라는 구도자들에게 “다음생에서나 출가하라”는 것이 대승다운 것일 수 있을까.

신체장애에 대한 출가 제한 또한 개선된 인권 의식에 맞춰 변화가 절실하다. 불교가 ‘편견의 종교’가 아니라 깨침의 종교, 자비의 종교라면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승가는 평등 공동체 …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선발 엄격심사 · 행자기간 연장 등 고려해 봄직

종합 논평 혜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승가가 평등한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승단의 입문에 차별을 부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제한’이라는 것은 ‘차단’이며 ‘막는 것’이다. 그러나 율장이나 승려법 어디에도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말은 없다.

만약 ‘경장’ ‘율장’에 근거를 두지 않고 승단의 입장만 고수한 견해로써 법령이 이루어진다면 매번 시대와 사람이 바뀜에 따라 의혹과 모순이 생겨 또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출가자 선발의 엄격한 심사를 한다. ▲행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이때 사승은 출가자의 여러 가지 면목을 관찰하며 공동체의 습의를 익히게 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받기 전 6개월에서 1년간 사승의 곁이나 사승이 정하는 곳에서 머물게 하여 승가의 구성원으로 결격이 없는지를 다시 관찰한 다음 사승의 승낙과 책임에 한하여 구족계를 수지하도록 한다. ▲3급 고시 역시 사승 혹은 사승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스님으로부터 추천서에 의거하여 고시를 취득하게 한다.

정리=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혜숙
우리는 선우
복지간사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

함께 생활 … 자연스레 가족애 발휘

“해줘야” 보다 “언제나 함께”가 중요

“아이들이 몇이에요?” “예쁜 딸이 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 물어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나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제가 그렇게 큰 아이들을 두었는가 하고 모두들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면 그룹홈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되물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선재동산은 청소년 그룹홈입니다. 가족해체나 빈곤,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아이들의 새로운 울타리가 되려는 곳입니다.

선재동산의 가족 희망인원은 5~6명입니다. 지금 선재동산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아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모라고 불리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고, 중간에는 더 많은 수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의 성격이 다소 다른 그룹홈에서 몇 개월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역할을 잘 하는 것인가를 궁리합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기 보다는 아이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재동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아이는 수년 동안 혼자서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지냈고 홀로 할아버지의 임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자주 무서운 꿈을 꾸고 잠을 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불과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와 함께 잠이 들고는 합니다.

두 아이들은 비록 선재동산에서 처음 만나 자매사이가 되었지만, 큰 아이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할 때 언니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언니가 동생의 공부를 봐주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각자 외롭고 힘들게 지내온 아이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서로가 자연스럽게 가족애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제로, 의도적으로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였던 어린 친구들에게 작은 생활공동체를 열어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족애 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 가정을 갖고 또 엄마가 될 것입니다. 예전의 상처를 이곳에서 모두 치료하고 건강하게 어른이 되고, 건강한 엄마가 되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모일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곁에서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침에 교복을 하얗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 고

거룩하신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본(사)군불교진흥회에서 시작하여 금년으로 제7회를 맞이한 “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운동이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에 힘입어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2547(2003)년 부처님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운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입 부		지 출 부	
		항 목	금 액
온라인 입금 지로입금	33,853,000 3,262,000	위문품(샘플포함) 10,300개 사탕 外(과자포함) 발송비 식대 및 작업비용 기자간담회비용 광고비 잔액	 25,750,000 6,821,140 576,790 801,000 300,000 600,000 2,266,070
총 계	37,115,000		37,115,000

위문품 10,116개를 55부대여곳에 전달하였고, 사탕 11,840개를 25부대에 전달하였으며,
과자 53BOX를 6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명예회장 박상길, 명예부회장 이병문, 회장 석정각, 수석부회장 자용스님, 이사 지문스님, 운월스님, 남륜스님, 무극스님, 보륜스님, 이건호, 국순려, 백승진, 감사 최우진, 류권홍, 사무국장 이하전, 사무원 반야심, 방제상 등이 본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본법인은 군불사 및 법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임직원이외에는 회주나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없는 바, 본 법인의 임직원를 사칭하는 경우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사)군불교진흥회는 군장병불자들의 신행과 군법사님들의 보살행을 지원하는 순수민간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군불교진흥회장 석정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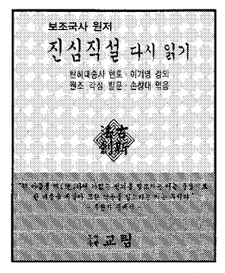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동참자 명단입니다.(지로는 5월 7일까지 접수)

온라인입금

정각스님	5,000,000	김상분	50,000	신미화	15,000	전성례	60,000
진각종	6,530,000	김연삼	50,000	양용석	50,000	정인호	100,000
법사종	1,000,000	김옥주	10,000	오금순	5,000	전재영	30,000
지문스님	1,500,000	김옥주	30,000	오봉정사	300,000	정지현	10,000
이건호	1,000,000	김인옥	500,000	오봉정사회장	200,000	정해춘	10,000
국순려	1,000,000	김정순	14,000	왕공식	4,500	전현숙	20,000
대한불교진흥원	1,360,000	김정희	100,000	유옥노	110,000	정혜숙	250,000
원광사	1,500,000	김종익	33,000	윤성봉	60,000	제유정	20,000
자용스님	1,000,000	김청수	10,000	윤재환	108,000	조남인	100,000
진소스님무정스님	1,000,000	김학석	10,000	윤현주	50,000	조쌍례	180,000
적경스님	1,000,000	김현정	100,000	이강민	30,000	조용재	250,000
선일스님	1,000,000	노교범	5,000	이경애	625,000	차재경	100,000
신직성	1,200,000	노보살	6,000	이경희	25,000	최선도	750,000
강동인	50,000	도춘희	20,000	이광택	10,000	최순애	10,000
강태복	10,000	묘인스님	47,000	이명은	50,000	최용수	28,500
구자익	100,000	박소부	12,000	이상백	10,000	최원석	5,000
극락정사	300,000	박정근	14,000	이애란	30,000	최정아	10,000
금강선원	250,000	박종호	5,000	이옥선	50,000	최준기	10,000
금철회	250,000	법원스님	75,000	이옥자	10,000	최진호	10,000
김종인,박홍익	250,000	보륜스님	750,000	이장원	20,000	최환성	5,000
김규성	50,000	봉림사	500,000	이재길	10,000	한석구	58,000
김달영	50,000	불교어머니	250,000	이춘란	200,000	허홍규	10,000
김명희	100,000	비엠에스코리아	200,000	자비회	200,000	홍도원심	3,000
김법왕궁	500,000	상현스님	150,000	장갈산	20,000	홍성표	30,000
김복업	200,000	서전	250,000	장복순	200,000	황명석	10,000

지로입금

곽경찬	10,000	박승희	20,000	유옥희	5,000	장순경	20,000
김광정	330,000	박인숙	55,000	유창혁	20,000	전영우	30,000
김규삼	30,000	박정근	20,000	유춘자	10,000	전영필	20,000
김성오	10,000	박정원	30,000	유현석	50,000	정진옥	10,000
김성하	20,000	박진영	5,000	윤갈웅	10,000	정현덕	5,000
김연숙	10,000	박희서	100,000	윤상웅	130,000	조미자	50,000
김영호	5,000	박희숙	15,000	이계원	23,000	조명찬	50,000
김은수	20,000	박희찬	50,000	이금예	13,000	조정일	100,000
김준형	5,000	배기환	4,500	이대섭	30,000	주정옥	50,000
김진우	5,000	본우스님	54,000	이동일	10,000	지경숙	30,000
김찬묵	30,000	불국사	10,000	이말숙	20,000	지연자	20,000
김태식	10,000	서동철	10,000	이명숙	5,000	천미진	100,000
노성재	10,000	손덕순	100,000	이미경	20,000	최만성	20,000
도은스님	20,000	송암사	50,000	이상혁	10,000	최병은	10,000
류강하	5,000	송전욱	10,000	이석륜	30,000	최성호	10,000
마명찬	20,000	수련회	100,000	이선영	250,000	최영진	20,000
무명인	10,000	신승철	10,000	이승엽	15,000	하초지	10,000
무명인	30,000	양태관	9,000	이원숙	30,000	허경구	100,000
무명인	50,000	엄성문	30,000	이윤자	10,000	허기림	50,000
문영민	10,000	오담교	30,000	이을순	20,000	허병두	20,000
박백윤	83,000	오덕심	20,000	이준성	3,000	홍성숙	50,000
박선희	10,000	오민환	14,000	이진아	50,000	황상하	20,000
박세화	2,500	오선효	41,500	이찬명	30,000	황원기	10,000
박순자	50,000	용문사	10,000	이형주	20,000	황홍기	4,500
박순호	25,000	월명사	20,000	임인택	10,000		

般若와 華嚴은 하나!
보조국사 : 융회정신~진심직설
탄허종사 : 법계정신~화엄사상
마음과 말이 분리될 수 없듯이 眞空과 妙有는 둘일 수 없다.


禪은 부처의 마음이요.
教는 부처의 말씀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명선원 강의(화엄사상)
※보조국사의 권수정혜결사문 중에서
“한 마음을 미(迷)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달아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다.”
· 참선 : 매일. 오전 06:00~12:00
· 강의 : 매토. 오후 4:00~ 6:00
①토 : 반야심경~김용정 박사 ②토 : 원인론~각성 스님.
③토 : 불전한문~서대원 박사 ④토 : 유 식~각성 스님.
※각 강의 저자직접 저술한 책으로 강의. 실비제공.
※전과정 4년간 계속.강의과목 매년다름 (문화대학)문의요망.
지금 전화주세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 휴대폰 019-9019-0888
전철 1호선 종로5가 5번출구 보명선원선우회
02-2273-8484